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오바다 · 요나 · 히브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오바다 · 요나 · 히브리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행 2:14).
그들은 모여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행 2:1-4).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마 25:46).

천국을 향해 열린 십자가의 길은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인
만나가 있습니다(출 16:35).

만나!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출 19:8).

2006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1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좇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2절).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쫓아간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더욱 우상을 좇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 죄가 주는 쾌락 가운데 살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홀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8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지만, 징벌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궁홀로 가득하십니다. 바로 그 궁홀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골 1:2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② 성령을 좇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학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 강한 세력을 좇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앗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한편으로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정치적인 안전을 얻고자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징벌이 불가피했습니다. 2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찌니라”(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 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기소서. ② 금요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저희가 먹이운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6절).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여유가 생기자 그들은 과거를 잊고 새롭게 맛보게 된 세상적이고 부패한 풍습과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나운 짐승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포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14절). 심판으로 사망과 음부가 그들의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몰락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셨듯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역시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지리라”(9절).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이란 이런 일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깨닫는다’와 ‘안다’는 말은 실제적 체험,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논리적인 인정이나 수궁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른 길은 의인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를 말하고, 의인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15절). 여호와와 날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악한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에게는 최후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와 날과 관련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두려운 결과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16-18절에 보면 재앙의 실상은 이미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벌의 참담한 결과를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 임하게 될 더 큰 심판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거룩한 금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찌어다”(14절). 이제 닥쳐올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정하고’라는 말은 ‘성별하다’는 뜻이기에 ‘금식을 거룩케 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금식을 하긴 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진정한 금식과 회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기도 제목 ①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12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고 이대로 없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18절).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때 슬퍼하시며 탄식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올 때에는 그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기도 제목 ① 나의 맘을 열어 주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14절). ‘판결 골짜기’란 말은 매우 암울한 시대에 관한 언급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판결의 골짜기로 이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판단을 했던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산인 시온에서 심판하실 것이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에 거하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심판을 피할 피난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저처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찬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 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씻은 자들만이 들어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이라”(계 21:23)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계 22:1)

기도 제목 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이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대표적으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물질적인 풍요가 극에 달하였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면서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판도와 같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시켰으며, 팔레스타인의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 속에 북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풍요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 영적,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하였습니다. 즉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한 채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으며,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는 2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같은 열방에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3-15절). 아모스 1장을 통해 북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의 심판을 차례대로 묘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리니”(암 1:3)

기도 제목 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점점 그 범위를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즉 본 장의 3절까지는 1장 6절부터 시작된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 언급되고, 본격적으로 북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 십이니라”(6-8절). 또한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매우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12절).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 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13, 14절). 물이 차면 넘쳐 흐르듯, 죄악도 넘쳐 흐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암 2:6)

기도 제목 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아 죄를 돌이키게 하소서. ② 금요 집회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묵사님의 영육을 붙드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금까지는 열방과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데 비해, 여기서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 세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장은 그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장을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히 12:6,8).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특별한 소유이며,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출 19:6)로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13-15절).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축복과 책무를 망각해 버리고 타락한 종교 생활과 방탕한 물질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금 고리가 귀중한 것이지만 돼지처럼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만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귀한 주님의 은총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해리라 하셨나니”(암 3: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②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모든 피택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 부유층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정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바산 암소에 비유할 만큼 사회 정의에 민감했으며,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본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일곱 가지 큰 재앙으로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다섯 번씩이나 탄식하십니다(6-11절). 거듭되는 탄식의 말 끝에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고 강조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은 끝내 무시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짖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과 재물과 쾌락에 마음을 다 빼앗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우상들을 떠나 참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거친 들판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순종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암 4:11)

기도 제목 ① 주님의 길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② 말씀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편으로 6장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회복의 방법을 '살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4-6절).

이렇게 살길로 제시된 회복의 방법으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4-8절). 이방의 우상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선과 공의를 실천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찌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찌어다..."(14, 15절). 셋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24절). 본문에서는 참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의로운 사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 지배층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개인적인 향락과 사치로 허비해 버렸습니다. “화 있을찢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1절).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 전반의 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1-6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아모스는 이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차 포로가 되어 학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7절).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은 안일하여서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안일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값을 죄인들에게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인이 박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죄를 죄로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찢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여”(암 6:1)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② 제 2차 청지기 훈련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부터는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장은 황충, 불, 다림줄 환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환상은 앗수르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베엘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을 모함하여 핍박합니다. “때에 베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10절). 정권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인 아마샤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정치적 권력으로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상이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으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설교되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아니 더 나아가 온 세상 열방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암 7:12)

기도 제목 ① 온 열방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하소서. ② 천지기 훈련 참석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과일이 익으면 자연히 농부의 손에 거두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의 잔도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1-3절)은 이 같은 진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2절).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상업 윤리의 실종과 도덕적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4-10절).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11절)과 그로 인한 꺾절한 생활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를 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11, 12절). 그 어떤 요인보다 말씀의 부재야말로 모든 죄와 악행의 원인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5-1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자의 구속을 약속하는 아모스의 다섯 번째 환상이 들어 있는 아모스서의 결론부입니다. 본 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여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구스, 블레셋, 아람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7절), 오직 '남은 자' 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죄의 유혹이 밀려오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닌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순결을 지킨 성도들에게 최후심판을 통해 승리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암 9:14)

기도 제목 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힘쓰는 성도되게 하소서. ②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제2차 청지기 훈련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바다는 에돔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선지자는 에돔의 죄를 지적하면서 먼저 그들의 교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돔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둘째는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환난을 기뻐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측면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수직적 관계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실천해야 할 사랑과 화평의 수평적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성도들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참된 일꾼들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옴 1:3)

기도 제목 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② 제2차 청지기 훈련시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왜곡된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나는 한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시작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건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기적인 본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요나 선지자처럼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여호와와 낯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바다에 대풍을 일으킵니다.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배 밑창에서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나아와 하는 말이 6절에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쩐이뇨”.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이웃에 대한 냉정함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절대로 부족합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쩐이뇨”(온 1:6)

기도 제목 ① 복음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에서 드러질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특히 본 장은 요나의 개인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본 장은 요나의 고난과 구원받음에 대해(1-4절),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5-10절). 구속사적인 견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구원을 얻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직접 사용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통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사실상 지옥이나 무덤 속같이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리심을 입을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본 장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본 장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욥 2:9)

기도 제목 ①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자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는 용서와 관용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서를 통해 볼 때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닌 구원과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과 또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온 3: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주목할 점은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화를 내었다는 점입니다(2,3 절).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서 니느웨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를 위해 뜨거운 햇살을 가릴 수 있는 박 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6절). 요나는 그 박 넝쿨을 심히 기뻐하였지만, 그 다음날 뜨거운 동풍에 의해 박 넝쿨이 시들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 같은 불쌍한 영혼들은 무가치하게 여긴 채 당장 나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이기심은 없습니까? 요나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답변 없이 질문으로만 끝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혼들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 박 넝쿨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론 4:9)

기도 제목 ①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실천케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위협과 로마의 박해로 영적인 위협에 처해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증거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을 선포케 하셨으나 종말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보내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1-3절).

다음으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일곱 부분을 인용하여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4-1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천사 없이 하나님만 계시는 때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만 계시는 때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확실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입증해 줍니다.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3)

기도 제목 ①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에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지키기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4절). 또한 저자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일일 뿐이고,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을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삼으시려 함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 성육신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5-18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당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히 2: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은 세속을 좇게 되고, 돈을 향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며, 주를 향한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추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바로 주께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주목해 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비결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암담하고 갈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의 담대함과 자라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②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는 주일이 되도록 온전히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엡 2:8,9). 믿음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장은 성도들의 삶의 척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삶의 척도란 단순한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어 고발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가리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히 4: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제3차 학습세례식을 통해서 모든 세례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총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어야 하며(1-3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4절)여야 합니다. 과거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갔던 모든 대제사장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등장했던 이러한 많은 대제사장은 인간적인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범죄의 울무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전자는 죄가 있는 제사장이고, 후자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 5:10)

기도 제목 ① 구주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보적 신앙을 버리는 길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회개할 것은 '죽은 행실' (1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회개하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그 말씀들이야말로 나를 향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히 6:1)

기도 제목 ① 죽은 행실을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때에 율법을 따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론의 반차 외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는 자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우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니다(1-3절). 그가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린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는 그 유래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사실상 아론의 반차보다 앞섭니다.

본 장은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직제가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을 세웠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11-28절). 아론은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16절),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십니다(21절).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쳐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만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히 7:26)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② 천군의 모든 성도들이 삶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7장에 이어 본 장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으로 변경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나 제사장의 직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시적 성소가 아닌 하늘의 참 성소에 계십니다(1-6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7-13절).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는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속죄와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 모든 인종과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언약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서 진행 중인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큰 영광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폐기된 옛 언약 의식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으나 새 언약의 제사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 자신의 피로써 단번에 드러졌기에 반복됨이 없습니다(1-14절). 특별히 본 장은 제사에는 꼭 피 뿌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는 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하심으로써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28절).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이르게 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6월 구역공과 초점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향해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602	행 2:14	성령 강림절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라
0609	계 20:11-15	지 옥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0616	출 16:31-35	하늘에서 내린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0623	출 19:1-8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라
0630	고전 11:23-26	성찬식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성령 강림절

| 초 점 |

자존심을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라

| 찬 송 |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본 문 | 사도행전 2:14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
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강림절(오순절)은 구약 시대 칠칠절의 최절정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곧 유월절의 무교절과 맞물려 있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강림절(오순절)로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고, 그 후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강림과 함께 초대 교회가 세워진 날로 기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절기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행 2:14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결과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들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새로운 권능

성령의 강림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권능을 가져왔습니다.

행 2:2-4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들린 큰 소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어찌된 일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행 2:5-8

그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새로운 권능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성령의 강림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새롭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 새로운 메시지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행 2:16-21) 지금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술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행 2:15 /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아니라

베드로는 시편 16:8-11을 인용하면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낭송했습니다(23-31절).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말한 대로(31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32절),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36절).

행 4:12 /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2:21 / 누구든지 □□□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공동체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을 훈계하고 권고할 때 백성들은 마음의 찢림을 받았습니다. 이 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과 결과에 대해서 써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행 2:38)_____

결과(행 2:41-47) _____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목적

성령의 강림은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 되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사건의 진실입니다. 삼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각각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 28:18-20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눅 24:46,47

더 이상 우리의 인생 목적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존심을 모두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심령과 가정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니까?

오늘은 단순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성령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권능과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준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역사하소서.
2.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과 지 옥

| 초 점 |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 찬 송 |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본 문 | 요한계시록 20:11-15

¹¹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
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 ¹⁴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¹⁵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은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사 30:10).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상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지옥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마치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사 30:11). 예수님께서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지옥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든지, 혹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 5:29,30

계 20:11-15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칠곡 같은 어둠이 있는 곳

지옥은 칠곡 같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마 25:30 / 이 무익한 종을 바깥 □□□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아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돈을 잘 경영하지 못한 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밤만 계속됩니다. 그곳은 찬송 소리가 없고, 오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곳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마 25:41

지옥은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눅 16:31

지옥에는 오직 증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자들, 곧 불평하는 자, 위선자, 어리석은 자들이 가야할 집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계 14:10 /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을 받으리니

계 14:11 / 그 □□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곧 돈, 자존심, 이기심, 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악한 자들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눅 16:24

지옥에는 물도, 도움도, 위로도 없습니다. 그곳은 변화의 기회가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입니다.

실패자들을 위한 곳

지옥은 실패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는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천국의 기회들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 떡과 잔에 참여하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행 1:25 /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으로 갔나이다 하고

행 1:17 /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을 맡았던 자라

마 26:24 /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요 그 사람은 차라리 ☐☐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롯유다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路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9:43-50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케 하소서
2.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열려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며 천국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

| 초 점 |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 찬 송 |

찬송가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 본 문 | 출애굽기 16:31-35

³³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찻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³⁴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³⁵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마음으로 路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여정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나처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십 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은 2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니!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실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출 16:2,3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사백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때 그들은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승리의 정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적의 사건들을 써 보십시오
(설교문 참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말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 16:8).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출 16:14,15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십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애 3:22,23 / 여호와와 와 이 하시므로 우리가 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이 크도소이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성실하심을 인해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 6:32,33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또 다른 만나,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지 않으면 그 은총과 자비를 받지 못하거나 십자가를 무시하게 됩니다.

빌 2:5-7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너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 1:11,12

요 1:16,17 / 우리가 다 그의 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만나는 순전하고 달콤했지만 사십년 후 멈추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 2:17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를 주고 또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그 만나는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올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여정 동안 주님은 성령을 비롯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나누십시오(설교문 참조).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미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 간절한 기도 |

1.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소서.
3.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4과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 초 점 |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라

| 찬 송 |

찬송가 239장 사랑의 하늘 아버지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본 문 | 출애굽기 19:1-8

^㉑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
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㉒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
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㉓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
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
께 회보하매

출애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 3:12 /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
다. 이 때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습니
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이 모든 말을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출 19:8

※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히 5:9 /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 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제히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연합할 때, 모든 것은 아름답게 됩니다.

시 133:1 / 형제가 ☐☐ 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 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마 26:39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히 10:22 /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 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롬 5:8

롬 10:9

롬 10:13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히 11:8 / □□ 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 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 3:14 /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다 때 그것은 지금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약 2:1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믿고 행해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눅 15:21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로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 4:17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계 2:21 / 또 내가 그에게 할 를 주었으되

고후6:2 /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전적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갖게 하소서.
2. 진심으로 회개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말씀으로 풍성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5과 성찬식

| 초 점 |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하라

| 찬 송 |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26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14:1-3

행 1:11

살전 4:16,17

※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성찬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고전 11:26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식은 아무런 열성도 없이 대충대충 행해도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고전 11:28-30

※ 성찬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설교문 참조)

- | | |
|----------------|-------------|
| 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 | ② 우리의 삶을 헌신 |
| ③ 서로 용서 | ④ 서로 정죄 |

성찬식은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히 3:6 /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
대함과 자랑을 ☐☐☐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마 24:13 / 그러나 ☐☐☐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때에 따라 변화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
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요 1:29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 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 이로다

히 9:22 /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 흘림이
없으즉 ☐☐ 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
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정
치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지녔거나 선행을 수없이 쌓았더라도 이것으로는 구
원을 살 수 없습니다.

벧전 1:18,19

계 1:5-7 / (5)또 충성된 □□ 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 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불피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 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 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복음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롬 1:16

요일 1:7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은 신자의 삶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路

성찬식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 이상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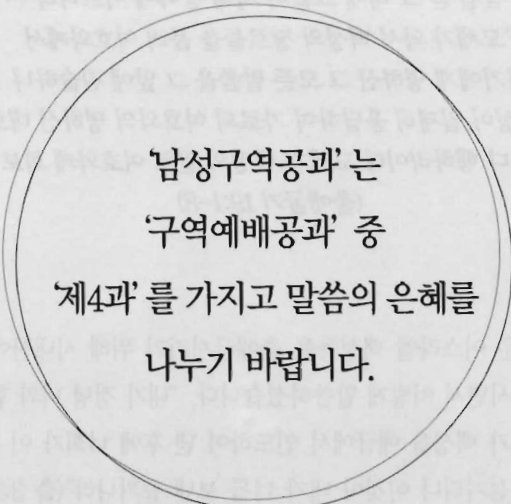
고전 11:24,25 / (24)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하라 하시고 (25)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위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찬식이 되기 원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3.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¹⁾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
⁷⁾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⁸⁾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출애굽기 19:1-8)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 3:12).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

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4-6절).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8절)! 모세는 다시 돌아가 백성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제히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을 행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두가 순종함으로 연합할 때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

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배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쯤만 믿을 뿐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고 그 나머지 말씀의 의미들을 마구 뒤섞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금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14은 질문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듣고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은 체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믿고 행해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눅 15:21).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6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전적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6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이창수(1-7일), 황진섭(8-15일), 이정훈(16-23일), 김태석(24-30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